

고경면 주민, 목숨 건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반대투쟁

김영석 시장, “내 목 걸고 환경오염시설 막겠다” 약속

고경면 파계리 일대 주민 400여명이 21일 오전 영천시청 앞에 모여 “죽음을 각오하고 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설치를 반대한다”며 집단 물리력에 나섰다. <사진> 고경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박흥식 위원장(파계리) 등 일행은 이날 영천시청 소공원 앞 인도에서 “유해물질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물러가라.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삶 지키겠다. 대기오염, 환경오염 결사반대” 등 구호와 손 팟말을 들고 영천시를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설치면적이 3만㎡로 건축면적 480평보다 너무 과다하며 사후 증설과 증축의 여지가 의심되고 ▲연료로 우드칩(재활용 불가능한 나무뿌리·폐목, 재선충 등 피해 목 분쇄 칩)과 펠릿을 사용해 미세먼지와 수질, 대기공해 발생으로 주민건강과 영농까지 우려되며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법률상의 여과집진장치로는 화력발전소 독성유해물질과 미세먼지 제거가 불가능한 한편, 환경부에 실시간 보고되지 않는 맹점 등을 이유로 발전소 설치반대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석 시장도 “내 목을 내놓고 우리 영천에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반대”면서 집회 현장에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자신은 ‘까부시자’를 세 번 선창하고 주민들에게는 ‘화력발전소’를 후창하도록 하는 구호로 분명한 발전소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발전소 설치인근 주민 최 모씨(농업)도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석탄 및 신재생에너지정책 기조에 사실상 법으로는 막을 길이 부족하다”면서도 “처리하수 과제지 유입으로 수질오염문제도 심각하다. 또 마을과는 직선거리 700m밖에 되

지 않아 주민건강 심각, 국립영천호국원과도 근접해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차라리 인근 산업단지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충언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의 화력발전소는 영천시 고경면 파계리 산 102번지 일대 총부지 69,538㎡에 설치면적 3만㎡, 3천kw의 설비 용량으로 설립되며 설립회사는 자본금 1천만원으로 지난 6월1일 법인 등기된 (주)바이오매스(대표 박 모 씨)로 지난 6월27일 경북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용 연료는 연간 3만2천톤(t)의 우드칩(약 17억원)이 투입되고, 보일



러 연소를 통한 증기터빈 가동으로 연간 2만4천Mwh의 전기생산(약 48억원)과 함께 약 30억원의 발전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폐목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Bio-SRF)의 경우 석탄 연소시 배출하는 환경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과 탈석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으로 매년 급증가 추세에 있으며, 화력발전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부지원정책 전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지난 19일 영천시 녹전동에 위치한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서 김영석 영천시장, 김진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북본부장, 한병홍 LH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하이테크파

크지구 사업시행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사업시행협약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영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당사자 간 사업의

영천-대경자청-LH,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시행협약’

4차산업 중추도시로서의 역할 기대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본 지구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처했으나 지난 2016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돼 정상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면적은 124만㎡(37.6만평)으로 2022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입주 중인 경북임베디드기술연구원, 보잉MRO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및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와 연계해 유관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김영석 시장은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급년 6월 개통한 상주영천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대구, 포항, 경주,

구미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기업유치에 최적의 입지다.”며 “신규고용 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 등을 집중 유치해 4차산업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훈익 기자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주 신문은 쉽니다.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 되십시오!
영천신문 임직원 일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해,
“농업정책보험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자체 지원 추가시 50~90%)

-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
다량, 무관, 가뭄, 물결, 등양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농업시설) 피해 보상합니다
- 가축재해보험**
속한 농가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
자연재해(우수, 설해, 화재, 직공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및 허새(사육가금)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
농작업 중 낙상, 골절, 농기계충돌, 농약중독 등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건, 장애 및 치료비용을 보상합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보장 -
희망, 주저, 간헐 등으로 인한 농기계 추락, 대인, 대물 및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합니다

영천 복성전투, 이순신 명랑해전과 맞먹는 역사평가 받아야

정규정·하기태, “영천 복성전투 기념사업회 만들자!”



영천 복성전투가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6.25가 있기 전 임진왜란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구로부터 나라 운명의 불씨가 된 가장 혁혁한 전과가 있는 전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투가 타 지방에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정작 성지인 영천에서는 잊혀져가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영천 복성전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저명교수 8인으로 구성된 복성전투 재조명을 위한 마라톤학술대회 후 2년여

만이다.

영천복성전투 재조명을 위한 시민운동가 모임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8월 초 하기태 영천시행정자치국장이 지역 각 언론사에 “영천 복성전투는 꺼져가는 구국의지의 도화선이 된 전투라”며 가치 재조명을 위한 독자기고문을 쓰면서 점차 가시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B·B·S경북지부 정규정 명예회장도 지난 9월 들어서부터 지역 각 언론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가치 설명으로 재조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은 20일 지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천복성전투야말로 이순신의 명랑해전과 맞먹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강조하고 ‘영천 복성전투 기념사업회’ 추진을 위한 출발을 알리고 각 언론의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란부터 근대사까지 조목조목 복성전투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기념탑 및 기념관건립, 국정교과서 수록, 문화행사로의 승화 등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도 호소했다.

또 정 명예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영천 복성전투에 대한 사업

을 시(市)에도 건의해왔지만 반응이 없었다.”면서 “시민들로부터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뒤 “늦었지만 이제 더 늦출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념사업회발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 명예회장은 또 “군산에는 최무선 장군이 화약·화포 80여척의 배로 500여 왜 적선을 물리친 진포대첩기념비로 웅장한 ‘수시탑’이 세워져 있지만 한 때 최무선 장군이 영주사람으로 기록돼 있는 것을 자신이 영천 인으로 바꾸었다”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지역 역사를 다시 찾고 재정립하여 올바른 기록을 후대에 길이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하기태 행정자치국장 30일 명예퇴임

공직으로 인생의 절반 보낸 소중한 37년 내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출마 뜻 밝혀

하기태 영천시 행정자치국장이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오는 30일 명예퇴임이 예정돼 있다.

하 국장은 남부동 출신으로 1980년 북안면사무소에 지방서기보로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영천군청 내무과를 거쳐 영천시 환경보호과장, 남부동장, 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등 주요 부서와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총무과장 재임 당시 2015년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 공무원 정원 30여명을 확보해 미래전략사업국과 말산업육성과 등 1국 4과를 신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각종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를 제공해 ‘행정의 달인’이란 애칭도 얻게 됐다.

2007년 남부동장 재임시 낡고 좁은 구남부동사무소를 행정수요와 주민편의를 감안해 도동으로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와 종합복지회관을 새롭게 건립해 동사무소 이용편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 기획감사담당관 재임시 영천시 예산규모 7천억원대를 열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 4차산업시대를 대비할 바이오메디컬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미래 영천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쌓도록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



다. 하기태 국장은 “지난 37년동안 영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인생의 절반을 보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을 지금부터 되돌려드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퇴직을 하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하기태 국장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뜻도 덧붙였다.

이용기 기자

고경산단, ‘산 넘어 산’

주식100% 양·수도계약, 본격 법정시비

고소인, “H씨가 65억에 산단 인수하면 400억 남는다” 속여 판사, “그러면 H씨는 산단에 얼마 투자? 왜? 주식 안 넘겼나?” H씨, “고소인이 산단 진행 방해 했다” 주장

10년 가까이 표류했던 영천 고경산단이 지난 1일 MOU체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법정논란에 휩싸였다. MOU체결 직후인 지난 12일 고경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고소인 측이 ‘사기꾼들’이라며 소란을 피운지 10일 만에 잇따른 압초에 부딪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2일 오후 S씨(고소인)가 H씨(영천고경산단 황모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혐의 2번째 공판을 열고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정에는 고소인 S씨를 증인으로 검사측은 사건 성립에 대한 당위성과 범죄 증거확인에 주력했으며, 피고소인(고경산단) 변호사측은 판사의 질문에 대한 해명과 S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서로 각각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재재판장이 S씨가 H씨에 지불한 65억원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 작성 경위를 묻자 S씨는 “투자금이다”고 답했고 H씨측은 “차용금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 재판장이 즉각 H씨를 향해 “투자금이던 차용금이던 왜 주식은 넘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H씨측은 “S씨가 산단 진행을 방해 했다”며 해명했으며, 오히려 S씨는 “이자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 거금 65억을 투자했는데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방해는 아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여 양측이 투자와 차용이라는 개념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고소인 S씨는 “H씨측이 65억원에 산단을 인수하면 400억이 남는다는 수치분석자료를 갖고 와 H씨 스스로가 일부 하도급을 주는 조건을 위해 돈을 건넸으며, 결국 90%이상 분양계약이 됐다는 것도



거짓이었다”며 폭로하고 산단측의 차용설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S씨는 재판장에 “H씨는 사기꾼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도 주문했다.

당시 법정관리에 있는 산단 인수 자금내역이 S씨의 65억원과 현 산단 토지담보로 마련한 60억원 등 모두 125억원중에서 120억원으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한 재판장이 H씨를 향해 “그러면 피고는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외 얼마를 갖고 산단을 시작했느냐”며 질문하자 H씨는 “5년간 투자했으며 가산이 모두 다 들어갔다”는 답변으로 답했다.

또 이날 재판장에서는 영천시가 산단 시행사로 깊숙이 관여된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S씨의 증언에 따르면 “산단측 관계자 A씨가 고경산단과 관련해 한 금융사에 제출한 PF자금 200억원 대출서류에 대표이사를 H씨로 한 ‘영천고경산단(주) 외 4개사와 영천시장’이 대출회사명의로 기재돼 있다”고 폭로하고 검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재판정에서는 당시 산단 인수시점에 영천고경산단(주)가 법정관리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폐지됐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등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후속 증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3시에 직전 산단 관계자인 황모씨와 S씨측의 박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3라운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학교유해환경 안전메뉴얼 긴급 마련

영천시·교육청·학교 관계기관 합동 대책



지난 사고로 영천시와 영천교육청, 영천중앙초등학교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련 회의는 물론 대책수립으로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천중앙초등학교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7일 학교 울타리에 ‘학교 내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와 함께 애완동물 학교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자 교장은 이번 사고 후 “학교생활 안전 매뉴얼 중 응급처치 항목에 ‘개에 물렸을 때’의 대처요령을 긴급 추가했다. 또 위급한 상황인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교내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학교운영회의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안전대책마련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학교 관계자는 “현재 피해학생 3명 중 2명이 당시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개별 심리검사, 부모와 함께하는 집단상담을 실시했다”며 “학교 내

Wee센터 전담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영천시 농축산과는 지난 8일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 축주(사고 개 주인)에 ‘애완동물 목줄 착용’ 등의 반려견 준수사항을 통보하고, 영천교육청에는 ‘낯선 강아지를 만났을 때(어린이 교제)대처요령’을 통보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해서 영천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 문제는 없었으나 해당 개는 축주와 상의해 지난 15일 안락사를 시켰다.”고 전했다.

영천교육청도 본보 보도 다음날인 지난 7일 관내 학교에 공문(유기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안내)을 발송해 유기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은 지난 15일에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관내 직속기관, 공·사립 유치원 및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반려동물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은희 기자

지난 9월초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도 수업도중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 유해환경개선을 위해 영천시(시장 김영석)와 영천교육청(교육장 유병수), 영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미자)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지난 6일 ‘학교유해환경 관리매뉴얼 꼼꼼히 챙겨야’라는 제하의 기사 보도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영천보현산 짚와이어 드디어 개장

첫 손님, 윤보람·박형진 커플



고향마을에 짚와이어가 생겨 개장일에 찾아오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히고 하강 후 "짧은 시간이지만 내려오면서 바라본 경치에 가슴이 뻥푹리는 기분이었다"며 대 만족을 이야기했다.

이날 개장 첫 손님군에 포함된 정태숙씨 외 5명(영천스포츠센터 수영동호인)은 하강 후 한결 같이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영천 대표관광명소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현산짚와이어가 드디어 정식 개장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영천시는 지난 20일 오전 보현산 일원(화북면 배나무정길 196번지)에 조성된 길이 1.411km인 보현산 짚와이어를 개장하고 첫 손님을 맞았다.

이날 개장은 오전 10시 서응수(75. 대구 동구씨), 영천시수난구 조대(대장 박성열) 대원 10명, 정태숙(고경 단포씨) 외 5명(수영도호회 회원) 등 탑승객 20여명을 첫 손님으로 기념촬영과 함께 시작했다.

개장 첫 탑승의 영광은 오전 9시 30분에 도착해 탑승권을 구입한 윤보람(30. 영천 교촌동)·박형진(33. 경산 정평동) 커플로 영천시 김병운 힐링산업과장의 축하꽃다발과 선물세례를 받았다.

박형진씨는 "여자 친구 집이 영천인데 오늘 개장한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탑승하고 싶어서 서둘렀다"면서 "첫 탑승의 영광을 안게돼 너무 기쁘다"고 했다. 박씨와 함께 첫 탑승에 몸을 맡긴 윤보람씨는 탑승 전 '설렘 반, 무서움 반'으로 탑승대에 섰지만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그러나 윤 씨는 하강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더 타고 싶다"며 씩스러운듯 이내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특히, 이곳 화북면 입석리가 고향인 서응수씨는 "집이 대구인데

천스포츠센터 수영동호인)은 하강 후 한결 같이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보현산 짚와이어는 보현산 자락과 보현산담 중앙을 가로지르는 시설로 1.411km를 공중에서 내려다 보면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전국 최고의 스틸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개장한 짚와이어는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 명절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동절기 11월~2월, 10시부터 4시까지)이용 가능하다. 탑승요금은 4만원으로 영천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30% 감면된다. 또 단체, 유공자(가족), 청소년이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10%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모노레일만 이용 시 6천원의 요금으로 탑승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매표소에서 탑승권 구입 후, 자신에게 맞는 탑승장비(하네스와 트롤리)를 지급받아 산악 모노레일(750m, 10분소요)로 정상인 탑승장소까지 이동해 안내요원의 장비 점검 후 와이어에 몸을 매달고 출발하면 된다. 하강 도착 지점에서 당초 탑승장소까지 되돌아오는 방법은 25인승 셔틀버스로 10여분 동안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출발지로 돌아오게 된다.

손희익 기자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백옥현 협의회장, "지역발전 위해 언론의 사명 다할 터" 김영석 시장, "지역발전에 지역신문의 역할 중요" 강조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회장 백옥현)는 영천신문 주관으로 22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분기별 정기회의를 지난 5월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석 영천시장과 협회 대표사인 성주자치시신론 백옥현 협의회장을 비롯해 (주)영천신문 박종운 대표와 각 회원신문사 대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성원보고, 개회선언, 인사에 이어 안건 심의, 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안건심의회에서 협의회는 KB경북투데이(대표 손광명, 울진)의 신입회원사 입회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백옥현 협의회 회장은 회의장소를 제공해 준 영천시와 차질없이 준비를 해준 영천신문사에 고마움을 전한 뒤 "영천의 첫 인상이 너무 포근하다"면서 "작은 밀알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협의회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여기에 김영석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영천방문을 환영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전지협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와 대안제시를 통해 지역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전지협경북협의회 공동취재

제18기 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신임 김병하 회장 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영천시협의회(회장 김병하)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출범식 및 첫 정기회의를 갖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의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김순화 시의장, 이상전 민주평통 경북부회장, 김병하 영천회장, 류시홍 직전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17기 자문위원 공로패 전달, 17기 회장·간사 공로패 전달, 이

인사, 자문위원 구성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취임사, 축사, 격려사로 진행됐다.

류시홍 직전협의회장은 이임사에서 "지금까지 17기의 활동이 18기 활동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제18기 출범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짧게 인사했다.

김병하 회장은 "내빈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갖게 돼 영광이다. 류시홍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대행기관장 인사에서 "앞으로 민주평통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임이 돼야 한다"며 "현재 국제 정세가 어렵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춰 본연의 임무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상전 경북부회장은 "김병하 회장과 46명의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문위원으로써의 희소성, 자부심을 가지자"며 "현 정부의 평화통일 호에 탑승한 통일전도사로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동참하자"고 격려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코자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범국민적 평화통일 정책자문 기구다.

제 18기 영천시협의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 실장 1명, 분과위원장 6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직능대표 37명, 지역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남성이 29명, 여성이 18명이다. 또,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13명, 50대 17명, 60대 15명, 70대 1명이다.

손희익 기자

영천공설시장

사려오의소!
보고사의소!

추석 장보기는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전통시장 이용으로

- ▶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 ▶ 내수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 ▶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천시

육군3사관, 베트남 유학생 초청 '사관캠프' 열어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소장 서정열)는 대구 수성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6명을 초청해 21일부터 1박 2일간 '충성대 사관캠프'를 실시했다.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국다문화재단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캠프는 유학생들이 장교 양성과정 체험을 통해 자긍심 제고와 단결력 배양이 목적이다.

캠프 1일차에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군인의 기본자세를 배우는 제식 훈련과 헬기레펠, 압박등반, 서바이벌 체험 등의 군사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했다. 야간에는 사관생도

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영천호국원 참배, 인고서원 견학, 생도들의 행진을 볼 수 있는 중정의식 참관을 했다.

캠프에 참가한 황티 티잉 화이 학생(여)은 "사관생도 체험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양국의 병영문화를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문기현 대령은 "미래에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관생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손훈의 기자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영천시는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추어 추경예산 9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지역의 저소득층 50여명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계기로 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음달 16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추진·공공서비스·환경정화·지자체역점사업 분야에 인력을 배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기 기자

건보영천지사,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

공익신고자 보호 홍보 실시



국민건강보험 영천지사(지사장 황경섭)는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부터 영천 지사 사옥 앞에서 전 직원이 클린공단 만들기 및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공익신고자 보호 홍보를 실시했다.

황경섭 지사장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배 소송과 금연치료 지원 사업 등이 조기에 정착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 영천지사는 국민 신뢰의 선도적 책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하고 클린공단 만들기를 위해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안주고 인받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

국립영천호국원-대구텍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우동교)과 달성군 소재 제조업체 대구텍(대표 한현준)은 지난 21일 대구 가창면 대구텍에서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국립묘지를 호국의 성지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대구텍 직원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계기를 위해 마련했다.

호국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텍은 국립영천호국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비석닦기, 쓰레기 줍기,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으로 국립묘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훈의 기자

추석 명절 대비 위생분야 지도점검 실시

영천시보건소

영천시보건소(소장 조명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영천공설시장 등 위생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품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보건소는 지난 18일부터 영천공설시장에서 위생담당부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지부장 박의삼)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위생안전 캠페인과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추석 명절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를 제조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

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와 건강기능식품 및 다소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건소는 밝혔다. 9.19(화) 외식업 영천시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해 성수식품 물가 등

항 파악과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찬경 보건위생과장은 "내고향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내방하는 출향인사에게도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영천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훈의 기자



별의별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

영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29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2017년 영천별의별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조남월 부시장 주재로 실시한 실무위원회에는 영천시, 영천소방서, 영천경찰서, 영천교육지원청, 한국전력영천지사 등의 안전관리실무위원과 축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안전 축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심의회의에는 교통, 소방, 구조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여부와 축제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대책, 사고 발생시 연락 및 대응체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축제 개막식인 29일 오전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가스, 전기, 소방분야의 최종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훈의 기자

경 제22차 북안초등학교총동창회 총회 축

○ 일시 ; 2017년 10월 9일(월요일) 10시30분

○ 장소 ; 북안초등학교 운동장(만남의 광장)

임원명단

- 고문 한학수 이정길 정효상 여성부회장 김주석
- 성희목 박선섭 이명호 여성부회장 박환옥
- 직전회장 최해석 여성부회장 김화순
- 회장 정용기 사무국장 김호규
- 수석부회장 이만우 총무 이건우

- 기별회장 — 21회 김태식 32회 이대식
- 11회 한학수 23회 김태환 33회 박재용
- 12회 김경수 24회 류희봉 34회 최기원
- 13회 이우천 25회 박재규 35회 염화식
- 15회 정우동 26회 서도원 36회 정환문
- 16회 박두환 27회 이광우 37회 박광석
- 17회 김기환 28회 손수원 38회 류재도
- 18회 황한섭 29회 박성태 39회 박일환
- 19회 김정규 30회 최중해 40회 박찬수
- 20회 류재준 31회 이만우 41회 김창수

북안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정용기

회장 010-4535-4901 사무국장 010-8587-8508 총무 010-3504-9458

“제대로 된 상품이면 판로는 열린다!”

조태호 영천곤충농장(굶뱅이) 대표

“곤충이 산업도 될 수 있다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천시 도립동에서 영천곤충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조태호 대표가 굶뱅이와의 인연을 이렇게 소개했다. 5년전 대도시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고향인 찾은 조 대표는 체질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 소규모 농사일을 시작했지만 수익은 별로였다. 우연히 TV를 통해 굶뱅이를 접한 뒤 강원도를 비롯, 전국 굶뱅이 농장을 찾아가 봤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부지런한 발품 덕에 굶뱅이를 낚을 수 있는 풍뎡이를

구입 후 굶뱅이가 생산에 들어갔다. 생산에 뛰어 들었지만 한번도 접해보지 못해 몇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과 영천시의 협조를 받아 영천곤충생산자협의회 회장(2015년-2016년)도 맡았다.

조 대표는 “판로확보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상품이 있으면 방법이 나온다”면서 건강한 굶뱅이가 생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굶뱅이의 먹이는 3개월 동안 잘 발효된 참나무 톱밥이 주성이고 수분이 많이 함유된 수박

이나 사과가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400여평의 농장에는 약 10만마리의 종자 굶뱅이가 자라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는 번데기는 별도 장소에서 부화 후 다시 이곳에 데려와 생산되고 있다. 약리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굶뱅이는 분말이나 환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살아있는 굶뱅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OEM 생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기업이 뛰어들기 전 현재 생산자협의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규모화,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사·박영자 시민기자



영천 22개 여성기업인, 영천시 새일센터와 협약 지역 여성들 취업 활성화 방안 논의

영천새일센터(센터장 구홍우)는 지난 18일 (사)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회장 김윤희) 회원기업 대표와 지역 여성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및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22개 기업 대표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영천새일센터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제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 여성의 일자리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동서제약웰빙 최경자 대표는

“근로자의 소속감 및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마인드 교육에 힘써줄 것”과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구직여성들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오방색 채영숙 대표는 “직업교육 훈련은 지역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힘을 강조하면서 현재 턱없이 부족한 봉제인력을 새일센터에서 양성할 수 있다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흔익 기자

공설시장 별빛영화관 내달 개관 준비 순조 시범운영,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선착순 무료입장

지난달 30일 위·수탁계약으로 개관을 준비해 오던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이 막바지 개관 준비가 순조롭다. 시는 내달 12일



영천공설시장 2층에 76석을 규모의 공설시장 영화관을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은 최신식 시민 문화 공간으로 3D 영화 상영도 가능해 상영작 선택 폭이 넓고, 매점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8월 30일 김영석 영천시장과 김선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달 12일 개관에 앞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손흔익 기자

전무석 제8대 영천시게이트볼협회장 취임 ‘클럽활성화와 친목강화에 정성 바칠 터’

영천시게이트볼 협회장 취임식이 21일 영천한정식 식당에서 개최됐다. 제8대 회장에는 전무석 000 취임했으며 취임식에는 게이트볼협회 임원, 회원 등이 참석했다. 신임 전무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클럽활성화와 게이트볼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회원들의 친목강화를 위한 각종 대회유치에도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한창희·장득찬 회원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했고 교육위

원장에 장인수, 홍보위원장에 김병호, 심판위원장에 윤문숙 씨를 김준환 회장은 청년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또 김덕수 전 회장과 권순찬 전 사무장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취임식에 이어진 2부에서는 사무보고와 연례행사를 위한 논의도 가졌다. 현재 영천시게이트볼협회에는 6개의 클럽이 구성돼 있으며 15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화와 건강한 영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무석 회장은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게이트볼 회원이 된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회원들의 단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 개조를 확대하고 경북도의 지원 행사를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에다 보람을 가미한 즐거운 게이트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장수를 확대하고 노후된 구장수리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곤충농장

대표 조 태 호

건강기능성식품

약굶뱅이 도·소매

경북 영천시 화남면 대내실길 23-31

H·P 010-3736-9407



가을여행은 영천에서 벌이는 축제 한마당에서 가족과 함께

한약 과일 문화 별빛축제 4개 모듬축제, '별의별축제'



별제연과 마상재 시연으로 조선통신사 거점도시였던 영천의 역사를 살린 독특한 행사이다.

◆ 별과 함께하는 신기한 과학체험 ~! 보현산별빛축제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별과 과학을 소재로 천문과학관, 천문전시체험관의 풍부한 인프라와 주제관의 전시체험 및 로켓발사체험, 별자리 강연,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과학캠프 등 전문 과학축제로서 체험을 통한 배움의 장, 경연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누워서 별보기 프로그램과 시 대표 관광지 스탬프투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여 더욱 알찬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별의별축제' 뿐 아니라 지난 3월 개장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와 9월 20일 개장하는 보현산땀 뺀 아이, 임고서원, 최부선과학관 등 축제 개최지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찾으면 더욱 알찬 영천여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영천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으로 보현산별빛축제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한약·과일축제장,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별별미술마을 주요 관광지를 경유해 운행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4가지 축제가 통합해 개최되는 '2017영천 별의별 축제'로 영천시 전역이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축제기간 영천에 많이 방문하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영천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영천한약·과일 축제, 문화예술제와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보현산별빛축제 등 4개 축제를 통합해 '2017 영천 별의별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통합축제 개최는 축제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높여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영천한약·과일축제, 문화예술제는 영천을 알리고, 한방특구 위상 강화와 문화의 도시 영천을 브랜드화시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 보고, 맛보고, 즐기는 오감만족 영천한약·과일축제

영천한약축제에서 영천한방산업 홍보 및 한방힐링체험을 위해 아산차게 준비한 한방주제관은 한방 스포츠마사지 체험, 한방 마스크팩 체험, 한

의사와 함께하는 한방상담 및 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한방족욕체험, 한방김치만들기, 포은효자탕 달이기 등을 운영해 생활한방 홍보에 집중한다. 과일축제와 연계되어 좋은 품질의 영천과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시민노래자랑과 왕평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흥삼, 한방제품 등 추석선물 세트, 우수영천과일, 제수용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한다.

◆ 풍성한 문화의 향연 문화예술제

영천문화예술제는 1974년 1회를 시작으로 2017년 44회를 맞이하며,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형 문화예술제로 각종 주제관, 그림전, 사진전 등 전시행사, 공예 전통혼례 등 체험행사, 풍물경연대회, 줄다리기대회 등 경연과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어우러져 영천시 전역의 분위기를 더욱 신명나게 만든다.

영천문화예술제의 하이라이트는 영천의 문화브랜드인 조선통신사 행



김영석 영천시장 별의별축제 인터뷰



"4가지 축제가 통합해 개최되는 '2017영천 별의 별 축제'로 영천시 전역이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오는 29일부터 개최되는 '2017 영천 별의별 축제'가 기존과 달리 한약·과일축제, 문화예술제, 보현산별빛축제를 동시에 개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영천강변공원 일원에는 한약, 과일축제, 문화예술제가 펼쳐지고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는 보현산별빛축제가 개최되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통합축제의 최고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별의별 축제를 위해 한방관련 체험프로그램, 각종 공연을 새롭게 기획했으며, 국내 보기 드문 천문과학 축제인 별빛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보현산천문과학관 뿐 아니라 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 등 주변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여행하기 너무나 좋은 요즘 영천에도 많이 방문 하셔서 새로운 경험을 해 보시길 자신 있게 추천 드린다. 곧이어 찾아올 추석연휴에도 가족, 친지들과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문화·과일·한약·별빛축제 4개 모듬축제 한마당으로

별의별축제

2017영천

2017. 9. 29(금) ▶ 10. 2(월)
영천강변공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

개막 행사 9. 29(금) 오후 6시
영천강변공원 특설무대

‘제1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성황 영천전투 의미 알리는 계기 마련



영천시는 지난 23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력권 일원에서 6.25전쟁 영천대첩 기념 ‘제1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했다.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미술협회 관계자 등 97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주최, 영천지구 주관,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청, 영천시, 영천시의회, 영천교육지원청, 영천시보훈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경산 옥곡동에서 엄마, 남동생(초1)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가까운 영천에서 대회가 열려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 태극기문양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김병은 힐링산업과 과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영천전투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했다. 접수된 250여명의 작품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눠 대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유치부 대상(대구지방보훈청장상) 1명, 초등부 대상(경상북도교육감상) 1명, 중·고등부 대상(경상북도지사상) 1명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등 수상작 외에 장려·특선·입선작을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9월말까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http://memorial.yc.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손은익 기자

‘다함께 사회적 가족만들기’ 추진 치매보듬마을-호산대학교 결연

영천시는 제10회 치매극복주간을 맞아 ‘다 함께 사회적 가족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호산대학교 치매극복 동아리 학생들과 치매보듬마을 어르신들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노인우울증과 치매예방을 돕고 공동돌봄문화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치매극복 동아리 학생들이 얼굴마사지와 네일아트를 해 드리고, 다 함께 레크레이션,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 등으로 서로 친근한 관계를 형성했다.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은 학생들은 정기적인 안부전화와 방문을 드림으로 어르신들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돕고 나아가 치매예방과 공동돌봄문화형성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이용기 기자



명절 앞두고 소외계층위문 컨셉 바꾼 영천시의회 ‘선물 앞세운 시설방문 기념촬영 이제 그만’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시설 위문에 나선 영천시의회가 26일 ‘나자렛집’에서 시설 관계자와 시설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새로운 컨셉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문했다. 매년 반복되는 복지시설 등 위문행사에 작은 마음이지만 형식이 아닌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선물 등을 앞세운 방문 기념촬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는 26일 정오부터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 영천희망원 등 지역복지시설 및 지역 소외계층을 잇따라 방문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인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회의 명절 앞둔 소외계층 방문에는 이춘우 의원을 제외한 김순화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직원 4명 등 모두 14명이 동참했고, 작은 기부금품이지만 라면과 명절위문품 등을 미리 준비해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

로 시설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정기택 의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오랜 지인에게 직접 지갑에서 추석용돈을 꺼내 건네주는 따뜻한 마음도 보였으며 김순화 의장과 의원 일행은 일일이 생활인들과 스킨십으로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희망했다. 방문 기념촬영과 관련해 시설담당은 “기부물품과 방문객 기록을 보고해야 한다”면서 억지로 기념촬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의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둔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보살피기는 당연한 것이다”면서도 “생활인들과 종사자들에 작은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에서는 전달물품을 앞세운 기념촬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절 등을 앞두고 정치인과 자치단체, 각 기관장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줄을 잇지만 대부분 선물을 앞세운 방문기념촬영에 치중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의회의 기념촬영 없는 소외계층 방문은 당연하면서도 오히려 신선함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장이 직접 나섰다.“주소 좀 옮겨주소!” 시장 1인 “지역 주소찾기 운동” 캠페인 추진



김영석 영천시장은 지난 18일 도남공단 입구에서 “지역 주소찾기 운동” 1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타지역에서 출근하는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형 배너,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해 홍보했으며, 김영석 영천시장은 “인구는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으로서 시의 존폐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인구증가에 사활을 걸겠다.”며 직접 나선 이날 캠페인에서

“주소 좀 옮겨주소!”를 호소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출산율이 1.17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천시 또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매월 40명 정도씩 자연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영천시는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나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감소율이 어느 정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앞으로 기업체 근로자, 타지역에서 지역으로 출근하는 기관·단체 임원 및 자영업자들의 출근길 길목인 주남사거리, 본촌·채신공단 입구에서 22일까지 매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별 릴레이 지역 주소찾기 운동 캠페인’과 연계해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석 시장은 “보다 나은 시책 개발을 통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영천 건설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제5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축제 성료! 말과 사람이 춤추고 즐기는 가을축제 한마당

‘제5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 마술(馬術)축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영천운주산승마조련센터 특별행사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 16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손명원 대한승마협회 회장, 김장주 경북도부지사 및 승마관계자와 시민들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경기, 크로스컨트리의 종목으로 펼쳐졌다.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가진 170여 명의 선수들과 120여 필의 말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승부를 겨뤘다. 특히 산악승마 코스를 접목한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영천운주산승마장이 가진 천혜의 자연지형물을 충분히 활용해,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이색 경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과 경기를 지켜본 관람객들은 자연과 승마가

어우러진 색다른 매력에 감탄을 쏟아냈다. 총 320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 결과 종합마술에서 1위는 팔공승마장의 신재훈 선수, 2위는 영천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노경현 선수, 3위는 구미승마장의 김효영 선수가 차지했다. 이밖에 크로스컨트리 80과 70에서 기아스팅어클럽의 오충환 선수와 흥성군승마장의 이상동 선수가 각각 우승을 거머쥐었다. 올해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상의 영광은 포항 에이블 댄스 동아리에, 은상은 영천 M.F팀에게, 동상은 영천 키건댄스팀에게 돌아갔다. 이용기 기자

별의별축제
2017 영천

2017.9.29(금) ▶ 10.2(일)
영천강변공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

- 한악축제 •과일축제 •별빛축제
- 문화예술제 •와인페스타

MBC 3FM : 9.29(금) 오후 6시
뷰티캐쇼 / 영천일명페스타 : 9.30(토) 오후 7시
영천스타시민노래자랑 : 10.1(일) 오후 5시
제22회 향명가요제 : 10.2(월) 오후 6시

영천악명시협의회 / 영천한악유용단체협의회 / (주)영천향토도시시장 / (주)에비제 / 별빛촌산삼태양근영농조합 / 월드허브(주)

한가위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한가위, 우리 모두 함께해요~

| | | |
|---------------------|-------------------|---------------------|
| 고 문 전호선 영진전기(주) | 회 원 도기식 나눔제약주 | 명예회원 한혜련 경상북도의회 의원 |
| 고 문 박두정 (주)동부레미콘 | 회 원 전재용 (주)주성 | 명예회원 권호락 영천시의회 의원 |
| 회 장 류시홍 현대자동차 삼천리정비 | 회 원 이용우 창신섬유 | 명예회원 배경환 금호파출소장 |
| 수석부회장 정찬두 (주)세기리텍 | 회 원 김종목 신흥토기 | 명예회원 유병용 금호119안전센터장 |
| 부 회 장 오길봉 동일금속(주) | 회 원 한혁동 금일전기 | 명예회원 정병진 금호읍장 |
| 부 회 장 강상훈 동양종합식품(주) | 회 원 장근호 흥창M&T | |
| 사무국장 주인환 풍천산업사 | 회 원 조영제 금호주류판매(주) | |
| 감 사 이석구 경북석유 | 회 원 정윤식 금호농업협동조합 | |
| 회 원 김무현 무동건설 | 회 원 박효정 효창산업주식회사 | |
| 회 원 정한식 (주)KC FEED | 회 원 정창섭 신하명식품 | |

금호기업경영인협의회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 제33회 한마음체육대회

■ 일 시 : 2017년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모교운동장

| | | |
|---|--|---|
| 고 문 이상우 (32회) " 김준영 (42회) " 최일광 (50회) " 이덕모 (53회) " 성영근 (54회) " 김성호 (55회) " 이종대 (56회) 자문위원 이춘만 (52회) " 고진구 (52회) " 김경해 (52회) " 조경숙 (52회) " 박동철 (53회) " 양도암 (53회) " 김서규 (54회) " 우애자 (54회) " 이용우 (54회) " 김태철 (55회) " 하준식 (55회) | 자문위원 전 혁 (56회) " 장건환 (57회) " 유석권 (57회) " 류치득 (57회) 직전회장 서동진 (57회) 회 장 박종운 (58회) 수석부회장 김종팔 (59회) 부회장 구본수 (58회) " 조장형 (59회) " 손중섭 (60회) " 조영철 (61회) " 김상길 (62회) " 김홍균 (63회) " 이만희 (64회) " 류준하 (65회) " 박종복 (67회) " 김환섭 (68회) " 안덕수 (69회) | 부 회 장 이해성 (70회) 감 사 이원조 (62회) " 이환석 (70회) 사무국장 전영국 (70회) 사무차장 조완용 (71회) 재무부장 허성준 (74회) 재무차장 이수경 (75회) 여성부장 오영희 (71회) 여성차장 김상희 (76회) 기획부장 김기호 (72회) 기획차장 성도현 (75회) 체육부장 최영철 (72회) 체육차장 이창근 (76회) 홍보부장 조옥희 (71회) 홍보차장 김윤정 (77회) 봉사부장 손관현 (72회) 봉사차장 박상호 (77회) |
|---|--|---|

기별 회장 및 총무

| | |
|------------|---------|
| 57기 회장 조동주 | 총무 이성국 |
| 58기 회장 박중환 | 총무 황효기 |
| 59기 회장 박창오 | 총무 황보선욱 |
| 60기 회장 임대억 | 총무 김천중 |
| 61기 회장 황대갑 | 총무 안미주 |
| 62기 회장 김상길 | 총무 이원조 |
| 63기 회장 석병일 | 총무 이재문 |
| 64기 회장 박말진 | 총무 이호준 |
| 65기 회장 서기수 | 총무 조 현 |
| 67기 회장 손재영 | 총무 박규만 |
| 68기 회장 김대림 | 총무 김순임 |
| 69기 회장 오태준 | 총무 김지훈 |
| 70기 회장 조영래 | 총무 김순복 |
| 71기 회장 김정훈 | 총무 이명식 |

72기 회장 이대희 총무 최병규
73기 회장 이창열 총무 박은주
74기 회장 김성동 총무 손효진
75기 회장 김은영 총무 김현정
76기 회장 박병무 총무 이창근
77기 회장 이동주 총무 김윤정
78기 회장 신동길 총무 이대휘
79기 회장 김동용 총무 문은실
80기 회장 김종표 총무 이영미

연락처

회 장 박종운 010-5529-5535
 수석부회장 김종팔 010-2501-6410
 사무국장 전영국 010-4530-7620
 사무차장 조완용 010-3037-5252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

새로운 경북의 출발은 금호에서!!

제18회 금호읍민 체육대회

▲ 일시 : 2017년 10월 21일(토) 오전 10시
▲ 대회임원

▲ 장소 : 금호공설운동장(금창교 서편)
역대회장 지경신, 이광언, 박규상, 조용필, 이창식, 윤기수, 김기주, 김호기, 김무현, 김광덕, 정현식, 김홍국, 한혁동

▲ 주최 : 금호읍 체육회
대 회 장 김무수 명예대회장 정병진

▲ 후원 : 금호읍사무소, 이장협의회,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전회장 백영상 수석부회장 전영도

부 회 장 전정석, 남병기, 이희철, 김병하

감 사 조형근, 김일호

상임이사 장도식, 박타곤, 이정화, 전치영, 김재덕, 허정구, 임경영, 탁인규, 윤주건, 정천익, 석광호, 김창섭, 김희대

당면직상임이사 서기태

사무국장 이형주 사무차장 권영운, 한용춘

대회장 (금호읍 체육회장) **김 무 수**

명예대회장 (금호읍장) **정 병 진**

‘기술혁신대전 기술·기능인재 경진대회’ 참여



영천전자고, 장려상 수상

영천전자고등학교 중기사랑팀이 지난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한 ‘2017년 기술혁신대전 기술·기능인재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과 나의 꿈부분 UCC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천전자고 중기사랑 팀은 1학년 4명(윤상배, 김민기, 박형규, 윤재웅)으로 구성해 올해 6월부터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를 UCC로 제작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기술혁신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작은 새싹, 꿈 키우는 어린 농부 수료식



북안초등학교

북안초등학교(교장 김석택)는 지난 22일 ‘어린이 농부학교 수료식’을 실시했다. 올 4월부터 운영한 어린이 농부학교는 ‘꿈을 키우는 농부’라는 주제로 학교의 텃밭을 활용한 원예 및 힐링 프로그램이다.

수료식에는 이종중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과장, 관내 기관장, 북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 약 20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학생들이 일군 텃밭 관람과 학습결과물 전시를 비롯해 이제껏 기른 농작물과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장터 행사도 함께 진행한 행사다.

김석택 교장은 “이번 농부학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농부학교 활동으로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손훈익 기자

프리허그로 온정 나누어, “행복한데이”로 사랑에 양념치기

영천고등학교

영천고등학교(교장 권기락)가 특별한 자유프로그램 속에서 전교생이 감성을 자아내 행복한 학교생활의 의미를 되찾고 있다.

영천고는 2017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프리허그데이로 따뜻한 감성을 나누었다. 지난 18일 아침 실시된 ‘행복한데이’에는 전교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프리허그로 온정을 나누었다.

또래상담자들로 구성된 ‘친구사랑 동아리’는 화려한 반짝이 옷과 나비넥타리로 치장해 친구들을 맞았고 ‘걱정마 친구! 내가 있잖아, 힘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게, 넌 최고야 너에 대한 믿음을 가져, 친구야 사랑해’ 등의 마음을 담은 문구의 팻말을 들고 응원했다.

또, ‘SCC합동아리’ 학생들은 목청껏 노래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선생님과 학부모는 교문을 들어서서 학생들을 안아주거나 하이파이브 하기, 악수하기, 사랑 나눠주기로 사랑에 양념을 더해 행복을 만들었다.



학교에 따르면 프리허그데이는 사제간의 기본예절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배려와 존중의 생활을 배우는 코너다. 특히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교실 만들기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영천고등학교 Wee 클래스에서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주최한다. 그 결과 사제간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익숙해졌다고 학교는 밝히고 있

다.

학생들은 “축제 분위기로 아침부터 많이 웃어서 하루가 즐거울 것 같고,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아주실 때는 대접받는 것 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전한다.

참여한 학부모는 “사제간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인 것처럼 힘을 내라고 더 열심히 응원하였으며 감동의 아침이었다”고 프리허그데이 소감을 피력했다.

손훈익 기자

학교 안전사고 방지 위한 지킴이 역량강화 나서 학생보호인력 학생 안전예방 연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2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내 초·중·고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40여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안 밖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배움터지킴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외부기관과 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전문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안전 역량 강화다.

특히 이날 교육청은 유기건 관련

안전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 응급조치로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병수 교육장은 “배움터지킴이 봉사자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학교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연수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장은 “특히 ‘애완견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완견이 학교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손훈익 기자

별빛이 가득한 고지서!
영천의 사랑
영천포도

대한민국 대표 포도
영천포도

한국 최대 재배면적인 경북 포도의 맛을 자랑하는 영천 포도. 영천에서 생산된 영천포도는 전국 최대 생산규모가 자랑입니다. 맛에는 별다른, 양에는 별다른 과다 지용성 영양분은 전혀 함유하지 않은 안전하고 건강한 포도입니다.

세련된 일그러짐을 그대로 담은 영천포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바르게영천시협의회 추석맞이 라면 100박스 기탁



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정광원 회장은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라면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성 북안면장은 “기탁 받은 라면은 관내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

추석명절을 앞둔 바르게살기 영천시임원들이 북안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지난 25일 지역 어르

한 나눔의 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 사랑나눔봉사활동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회장 조희채)임원 및 회원 15여명이 지난 20일 추석명절 후원 품을 기탁하기 위해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허의행)을 방문했다. 이날 복지관 주요 사업소개를 시작으로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함께 논의했다.

스타클럽은 쌀 100포, 라면 15박스(금 2,000,000원 상당)를 기탁하고 다가오는 추

석명절 소외된 독거어르신에게 이웃사랑의 온정이 전해져 조금이라도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허의행 관장은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뜻을 모아준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나눔과 복지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한가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 | |
|-----------|----------|
| 조 합 장 정윤식 | 이 사 박타곤 |
| 이 사 김무수 | 이 사 정현식 |
| 이 사 전영도 | 이 사 방입환 |
| 이 사 조성현 | 이 사 김종철 |
| 이 사 정재용 | 감 사 김치호 |
| 이 사 손형도 | 상임이사 강병창 |
| 감 사 김상호 | |
| 사외이사 윤광서 | |

금호농업협동조합

포은나눔공동체, 추석맞이 송편나눔 실시

행복의 한마음봉사단은 26일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전정에서 추석맞이 송편나눔 행사를 가졌다.

포은나눔공동체(회장 서경수)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독거노인,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송편을 전달했다. 아울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나자렛집,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송편과 포도를 전달해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서경수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면서 “나눔을 실천하시

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용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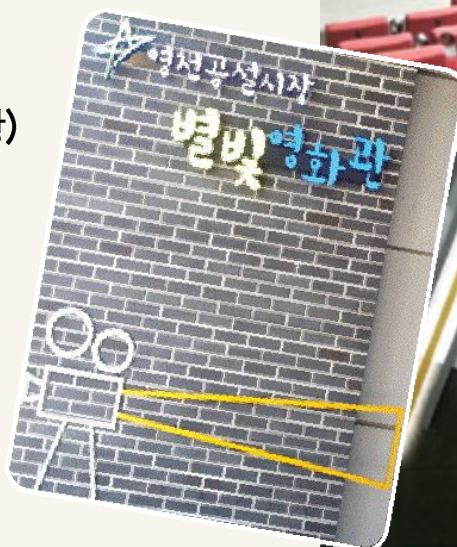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10월 12일로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 ☎1577-1000

영천에도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 개관

- 개 관 일 : 2017. 10. 12 (목)
- 위 치 : 영천공설시장 2층(구. 만남의 광장)
- 규 모 : 76석
- 시범운영 : 2017. 9. 27 ~ 10. 2(6일간)
 - 영 화 명 : 아이 캔 스피크, 부니베어
 - 상영횟수 :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3시)
- ※ 시범운영 기간 중 현장 선착순 무료 상영
- 홈페이지 : <https://yc.scinema.org/>



사설

양보와 나눔 가득한 한가위 되었으면,,

★이태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이변! 이변 우에 되지요?>



환자가 마취로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집도위가 바뀐다면, 용납할 수 있을까? 법적 책임은?

김을녀는 평소 사각턱과 처진 쌍꺼풀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고, 드디어 대학생이 된 후 부모 동의를 얻어 성형수술을 하기로 한다.

국내 최고라고 선전하는 K 성형외과 원장 이기도는 김을녀를 상담하면서 자신이 직접 집도를 할 것이며, 적어도 1,000여 회 이상 집도 경험이 있으니 수술이 잘 될 것이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대충 설명하여 김을녀에게 성형수술을 꼭 하도록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김을녀의 수술 날, 먼저 마취를 담당하는 마취의는 김을녀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여 수면에 빠지게 하고 수술을 준비시켰는데, 이기도는 자신이 전 날 과음하여 피곤하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인 유광남에게 이을녀의 수술을 대신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광남은 병원장 이기도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김을녀의 사각턱 돌려깎기와 쌍꺼풀 수술을 성형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인면 비대칭에 쌍꺼풀은 염증이 계속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재수술을 하는데만 2천 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은 김을녀와 그 부모는 이기도를 찾아가 왜 수술을 잘못된 것인지 추궁하였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술을 할 의사가 바뀌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병원장 이기도 및 부작용이 있는 수술을 한 유광남을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데...

과연 이기도, 유광남의 형사상 죄책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미용성형 수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과 수술에 비하여 그렇게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외모적인 개인적 만족감을 위해 특정 날짜를 예약하여 여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한 환자는 대부분 자신을 직접 수술할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리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수술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성형외과는 원장이 자신의 경험과 수술실력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 수술은 몸값이 비교적 저렴한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을 1일 고용해서 대리 수술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고, 한때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수술 말고도 암 수술 등 외과 수술의 경우에도 특정 의사가 수술을 반드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특진료라는 명목으로 수술비를 더 지급하고 암 수술 등을 부탁하였음에도 경험이 많지 않은 수련의가 수술을 대신한 경우도 이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대리수술행위에 대하여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술이라는 자기 신체 훼손행위를 허락한 의사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자에 의해 수술이 행해지는 것은 신체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천만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손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금 5천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175508 판결 참고).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변! 이변 우에 되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746-0088, Fax053)721-8865, thyune@hanmail.net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특자기고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안상섭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 끼니를 나누는 횡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경우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아이가 많아지고 방과 후에도 학원을 전전하면서 대중 패스트푸드로 한 끼를 때우고 늦은 밤에 집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을 필요한 영양 공급으로 건강 심신 발달, 올바른 식생활의 이해,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급

경북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식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 배려와 나눔을 배웁니다.

경북지역 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도 단위지역 중에서 꼴찌에 해당합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경북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물론 사회 경제적 영향력과 미래 꿈나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아이들에게 공급할 경우 사회와 자연, 지역을 살리는 것은 물론 복지의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식품 생산, 구매 및 식품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아이들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할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확대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탓에 지자체와 교육청 간

분담률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는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셋째, 무상 급식은 돈의 문제로 보면 급식은 그저 한 끼를 때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급식을 왜 학교에서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식사를 하면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더욱 행복해 집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식사 시간을 제공받는 것은 섬김과 존중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교육의 시작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북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북교육청이 나서야 합니다.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구매되어 우리 아이들이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촌도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학교에서는 더욱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우리신문 영천신문 등록일자: 201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경북다01416

발행인: 박중운 편집인: 이용기 인쇄인: (주)중앙일보
취재부: 338-7100 광고부: 332-2400 FAX: 335-6600
구독료: 1년 4만원 3개월 1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아사동 보목2길 3
E-mail: licjg4@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날씨예보: 26일 구름조금 15°C ~ 28°C, 27일 흐리고비 18°C ~ 23°C, 28일 구름조금 17°C ~ 25°C, 29일 맑음 10°C ~ 24°C

농악축제 보현산 딸방축제 과일축제 문화예술제

별의별의 축제

2017 영천

입시-장소 2017. **9.29(금) ▶ 10.2(일)** 영천강변공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

개막행사 9.29(금) 오후 6시 영천강변공원 특설무대

